

영광군, '장기임대농기계 전달식' 가져

개소당 사업비 2억의 20% 4천만원 장기 임대기간 분할 부과 농업·농촌 고령화 심화 인력난 해소와 경영비 절감에 기여



영광군은 지난달 10월 3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교육관에서 장기임대대상자 2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2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임대농기계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1부 장기임대사업 추진 경과 보고, 장기임대차계약, 농작업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부에는 장기임대농기계 시연

회 및 해당 기종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인계인수를 하였다.

이번 장기임대농기계 전달식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일파만과 주식회사는 주산지작목 대과 17.7ha 재배를 위해 동력이식기 등 12종 33대, 칠산영농조합법인은 주산지작목 콩 55.72ha 기계화에 콩 콤팩트 등 5종 5대를 선정 구입하였고, 장기임대기간 5~8년 동안 발농업 기계화 현장에 활용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장기임대료를 개소당 사업비 2억 원의 20%로인 4천만 원을 장기 임대기간 동안 분할 부과하며, 농기계 보관 및 유지보수는 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군 재정적 부담감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강종만 군수는 "장기임대사업과 같이 앞으로도 영광 군은 농업농촌의 인구소멸 대응과 농업인의 농가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이용 촉진 방안과 다양성을 발굴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선물광광 온라인 라이브 팜파티 '성료'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새로운 유통판매 방식 선보여

함평군이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맞아 실시한 '선물광광 온라인 라이브 팜파티'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함평군은 "함평군정보화농업인연구회(이하 '함평농') 주관으로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선물광광 온라인 라이브 팜파티'가 개최됐다"고 2일 밝혔다.

'팜파티'란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농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공연, 체험 등을 여는 행사를 말한다.

이번 행사는 전문 쇼호스트의 라이브 커머스부터 우슬, 백향과정, 장어, 꽃차 등 농·특산물 현장판매에 이르기까지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팜파티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농산물 활용 요리체험, 페이스페인팅, 떡 만들기 등 갖가지 체험부스와 쿠폰 및 농특산물 증정 이벤트도 마련돼 관객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번 팜파티에서는 함평농에서 구축한 농·특산물 종합쇼핑몰인 '해림'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해 농업인들이 전문 셀러 라이브와 함께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가 운영됐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향대전과 함께하는 이번 라이브 팜파티가 지역 농특산물의 새로운 판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무안군 청년협의회, 지역민과 함께 청년 감성 나누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제2회 무안 YD(Young Dream) 페스티벌이 무안군민과 청년 감성을 나누는 새로운 축제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폐막했다.

무안 YD 페스티벌은 전남 17개 시군 단위 중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무안군의 특성을 살려 기획된 행사로, 무안군 청년협의회도

청년들을 위해 프로그램으로 참여했다.

청년협의회는 ▲길거리 퍼레이드 ▲점등식 프로그램 참여 ▲지역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설문 조사 ▲청년 정책과 청년센터 홍보 ▲타로, 타투 체험 프로그램 ▲돌려 돌려 돌림판! 경품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부스를 운영해 축제 관람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지역 청년에 공감하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손천수 무안군 청년협의회 회장은 "축제에 함께함과 부스를 참여해 주신 지역 주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년, 그리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무안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자립 여건 마련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청소년참여위원회, 바다환경 정화활동 실시



신안군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위원들이 지난 10월 28일(금) 압해읍 신장선착장에서 바다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바다환경 정화활동은 2021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 시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직접 제안하여 실천하고 있는 활동으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무분별한 해양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매우 열심히 참여하였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시, 주요관광지 긴급 안전점검 실시

목포시가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관광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3개반 27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했다.

점검단은 갯바위, 평화광장, 해상케이블카, 고하도 해상데크, 유달유원지, 근대역사 1·2관, 보리마당·시화골목, 유달산 일원 등 주요

관광지 시설물을 점검하는 한편 주변의 위해 요소도 면밀히 살폈다.

전반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관리 상태가 양호한 가운데 시는 경미한 사항은 조속히 보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급경사와 미끄럼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조치도 보완할 예정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영암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된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책임기관의 재난관리단체별 역할을 종합진단 평가하는 제도이다.

올해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 29, 시도 17, 시군구 226, 공공기관 63)을 대상

으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 결과, 영암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영암군은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적 △재난유형별 매뉴얼 관리 △재난대비훈련 실시 실적 △상황 관리 △재난구조 인프라 확보 및 훈련 부문 등 여러 지표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